

직원이 곧 자산...함께 소통하고 성과 나누며 성장

좋은 일자리

JOB 전남에 있습니다

전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

<3> 아이쿱 농산 APC



구례군 용방면 자연드림파크는 지난 2014년 4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 제공을 목표로 문을 열었다. 라면공장 등 생산시설, 자연드림 매장 같은 유통시설은 물론 조합원, 외부인들도 이용이 가능한 영화관,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체험공원, 비어락하우스 등의 편의시설도 갖췄다. 개장 10년째를 맞으면서 자연드림파크는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 직원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지역 농산물이 가공·판매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
생산공장·물류센터에 편의시설까지
농산물 가공·판매에 밀키트 개발도

휴게실·사우나 등 근무 여건 최고
직원 평균 38세에 근무 연수 7년
매년 급여 상승에 직장 만족도 높아

구례군 용방면 자연드림파크는 오로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누구나 쉽게 먹고 건강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문을 열었다. 라면공장, 김치공장 등 생산공장과 상온, 냉장, 냉동 창고로 갖춘 물류센터, 이와 함께 직원들이나 조합원, 외부인들도 이용이 가능한 영화관,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체험공원, 비어락하우스 등의 편의시설도 있다.

농촌에 들어선 삭막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누구나 나와 즐길 수 있는 식품테마파크와 유사한 형태다.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 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지역 농산물이 가공·판매되는 공간이다. 현재 직원 수는 모두 560명, 평균 연령은 38세에 불과하다. 80% 이상이 지역 출신이고, 최저임금 역시 법정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

자연드림파크에서 각 공방에 공급될 농산물을 사들이고 1차 간단 처리해 넘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이 아이쿱 농산 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다. 70명의 아이쿱 정과와 36명의 김치 공방이 통합하면서 106명으로 직원 수가 늘었는데, 최근 밀키트 신제품이 속속 개발되면서 계속 증원하고 있다. 조만간 5명 정도를 고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신경식(62) 대표는 지난 2013년 입사해 11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실상의 창업 멤버다.

일단 APC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전남도내 최고 수준이다. 휴게실, 사우나, 체력단련장, 극장, 식당, 힐링 산책길(2.3km), 광장, 공원 등이 잘 갖춰져 있고, 급여 역시 매년 6~7%씩 올리고 있다. 연봉 평균은 3100만 원 수준으로, 평균 근무연수가 7년이다. 아이쿱 농산 APC는 단추 하나 눌러서 제품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다. 모든 농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해결해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3년차 정도는 돼야 숙련도가 높아져 자기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고, 5년이 넘

어가면 비로소 원물 입고, 전처리 과정, 세척·포장 단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숙련된 직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인증 기업으로, 전남도가 직원들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인 휴게실을 설치해주시기도 했다.

10년째 근무중인 황미화(아·55)씨는 남원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다. 연봉은 3500만 원으로 매달 실수령액은 230만 원 정도다. 황씨는 "여성들이 편하게 일하면서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라며 "여기 시스템은 모든 작업에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고단한 측면이 있지만 200~300%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서 정년퇴직을 하겠다는 마음이며,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주변에도 넘쳐난다"고 덧붙혔다. 아이쿱 농산 APC는 내부 공지, 추천, 외부 공모 등 3가지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100% 면접으로 1~2명씩 필요할 때마다 채용하고 있는데, 전문 분야인 경우는 대부분 외부 공모로 진행된다.

신경식 대표는 "면접에서는 주로 태도를 살핀다"며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성실함이며, 면접 참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자세에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쿱 농산 APC의 임직원 간 내부 소통이 무엇보다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20~30대 직원들은 쉽게 자신의 의견을 팀장, 임원에게 건의하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을 들 수 있다.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가 적다는 점도 벽을 낮추는 효과를 주고 있다. 대표의 연봉은 신입 직원의 두 배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다. 창사 이래 지금까지 구조조정 한번 없이 계속 성장하며, 그 성과를 직원과 함께 나누면서 직원들의 자존감도 높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근무여건 개선...젊은 직원들 장기 근무하며 역량 높아져”

신경식 아이쿱 농산 APC 대표

식사 무료 제공에 탄력적 근무
편안한 근무환경에 퇴사율 낮아

정부·지자체 현장 중심 지원으로
기업·지역 모두 혜택 공유했으면

“요즘 축의금이 좀 많이 나가 걱정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오랜 시간 함께 업무를 하다보니 사내 결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회사 입장에서든 부사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판단입니다.”

신경식(62) 대표는 행복한 고민중이다. 기업의 미래인 젊은 직원들이 증가하고, 이들이 떠나지 않고 장기 근무하면서 직원 역량도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신 대표의 미션은 직원들이 최대한 편하게 근무하도록 배려하면서 회사의 미래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퇴사나 이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연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연봉과 함께 뛰어난 근무여건이 그 이유라고 봅니다. 여기에 기업이 직

원에게 해줄 수 있는 나름의 배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쿱 농산 APC 직원은 무료 식사가 제공 받고, 통근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노동시간은 '9to 6'지만, 육아 등 본인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요즘 육아 휴직을 가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 직원을 정확히 1년만 대체할 인력을 충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제 할 일하기는 하지만 공교로 주변 추천을 받아서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직원은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진 총괄팀장이다. 개인, 가정, 회사에 모두 진심으로 대하고, 모든 업무에 솔선수범했기 때문이

다. “파트장으로 일하면서 근무시간 전 이미 그날 예정된 작업에 대한 준비를 마쳐 놓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해서 그 준비에 맞춰 일하면 되는 시스템인 거죠. 제가 바로 총괄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는 구례군을 비롯해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기에 있는 사군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공장을 짓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이 보다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기를 바랐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 유입,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기업과 지역 모두 혜택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합니다.”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